

그린피스와남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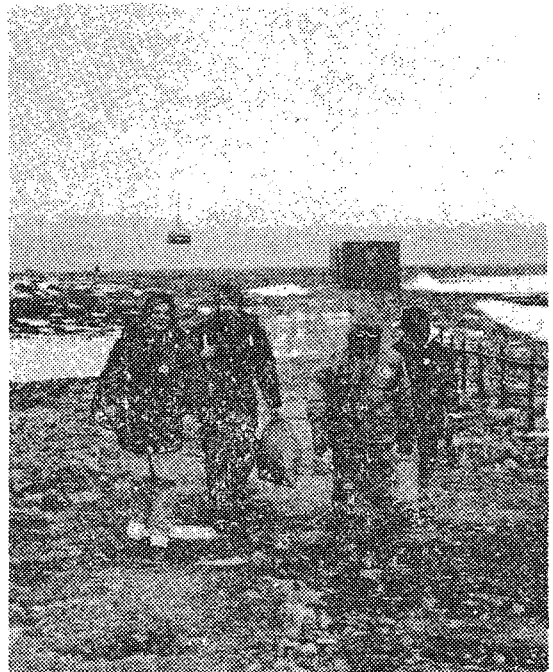
오는 6월5일은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이다.
 '지구의 마지막 보고'라 일컫는 남극에서 올해초
 철수한 세종기지대장 장순근박사의 원고를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장순근 / 해양연구소 극지연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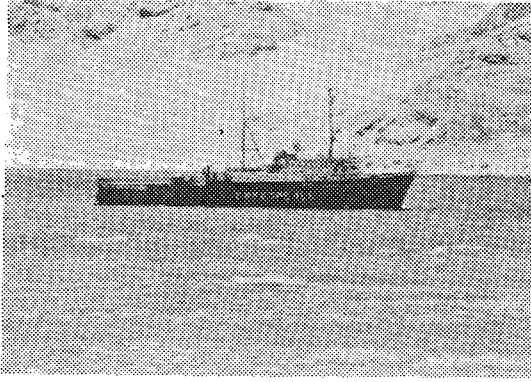
그린피스는 정부와 산업기관에 의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의식에서 탄생되었다. 그린피스(Greenpeace)라는 단어는 1970년 12명의 캐나다사람들이, 30년 묵은 광어어선 필리스 코마르코호로 핵실험반대차, 당시 미국이 지하핵실험장으로 쓰던 알래스카 암치트카 섬으로 항해하면서 만들어졌다. 지상의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생명의 색깔인 녹색(Green)을 살려서 지상의 평화(peace)를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결국 그린피스의 선박은 핵실험장으로 가지 못했으나 이 항지항해로 핵실험은 취소되었으며, 이어서 핵실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면서 그곳에 있던 핵실험장은 폐쇄되고, 6회의 핵실험은 취소되었다. 이것이 그린피스 최초의 비폭력직접행동의 효시였으며, 1972년, 1973년에는 남태평양에 있었던 프랑스 대기권핵실험의 반대에 나섰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이러한 강력한 행동등을 시발로 3개의 주요분야 즉, 해양환경보호, 핵실험반대 및 유독성화학물질투기반대를 주장하고있다. 현재 서유럽, 북미, 대양주 등과 남미의 몇국가등 25개국가에 250여만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린피스는 어떤정부조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관이다. 그린피스



△세종기지 검열차 기지로 오는 그린피스 단원들
 (왼쪽에 단장인 Maj de poorter 박사,
 오른쪽 두번째가 짬자)



▲ 세종기지앞 마리안코브에 정박중인 그린피스호

의 운영은 기금마련으로 모금한 돈, 관심있는 사람들의 기부금, 회원들의 회비, 그린피스 활동관계스티커, 포스터,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 물품판매수입에 의존한다. 그린피스는 말이나 글로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명하다. 예를 들면, 1975~77년에는 그린피스단원들이 소련포경원과 그들이 조준하는 고래사이에 보트를 타고 들어가 버티고서서 “고래를 죽이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몸으로 고래를 보호했다. 그뿐만 아니라 1980~2년에는 캐나다뉴 파운드랜드에서는 해표보호차 모피가 상품가치가 없도록 해표를 스프레이로 염색하기도 했다. 서유럽에서는 핵폐기물이나 유독성 화학물질을 바다에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드럼통의 떨어지는 지점에 고무보트로 접근, 몸으로 못떨어뜨리게 하거나 단원들의 몸을 원치에다 묶기도 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소련의 고래잡이, 캐나다의 해표도살, 화란의 핵폐기물 투기 등이 없어졌다. 1986년1월1일부터는 고래잡이가 전면금지되었으나, 일본은 “과학연구”라는 미명으로 고래잡이를 계속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본다. 그러나 국제포경협약을 준수하는 나라들과 그린피스 등 강경환경보호단체는 고래보호를 적극 추진중이다.

그린피스가 남극환경보호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이다.

즉, 그린피스는 남극의 해결방안으로 남극을 “세계의 공원(World Park)”으로 할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남극에서는 과학연구활동, 관광활동, 어류와 크릴



▲ 세종기지의 유류아직지에서 검사용 흙을 퍼담는 그린피스단원.

의 어획, 시설물의 건설을 주시, 점점하고 일체의 지하자원개발, 군사행위 및 핵실험관계행위, 핵폐기물 및 유독물질의 폐기물의 방치, 해산포유류와조류의 살해행위 등을 금지하고있다. 세계의 공원개념에 의하면 남극의 야성상태의 보호, 야생산물 및 자연환경의 절대보호, 모든 국가과학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과학활동지역의 유지 및 핵물질이나 기타무기 및 군사활동이 없는 평화지역의 유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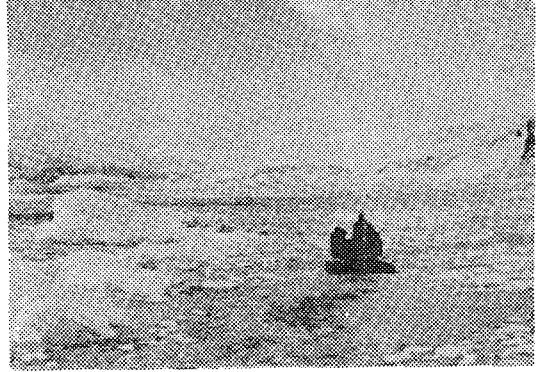
1983년 1월에는 프랑스가 남극기지인 뒤몽 뒤르빌 부근에 비행장건설을위하여 사용한 화약의 폭발장면과 그 폭발에 피를 흘리며 죽은 아델리펭귄 등을 촬영, 공개해서 인간의 남극진출에 따르는 환경영향을 비판했다. 1984년에는 비행장건설장비를 수송하는 선박의 출항을 막았다.

1985년에는 총톤수1,500톤의 그린피스호를 구입, 그린피스 남극기지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 그린피스의 남극기지는 남극을 세계의 공원으로 하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세계의 공원기지(World Park Base)”로 명명되어 1987년 2월13일 준공되었다. 남위 77°38', 동경 166°24'에 위치하며 로스섬의 맥머도기지에서 20km이내정도 떨어진 케이프 에반스에 있다. 1912년1월 남극점도달후 귀로에 전원 조난당한 영국 스코트가 최후탐험에 쓰던 기지 바로 옆에있다. 폭 6.25m에 길이 16.6m의 주건물과 발전동으로 되어있다. 1987년부터 4명이 상주하면서 맥머도기지와 그 옆의 뉴질랜드의 스코트기지의 환경보호관계를 점점하고있다. 실제



▲ 그린피스는 기지검열후 킹조지섬소재 남극기지 대장들을 초청했다.
(왼쪽부터 필자, 소련기지 대장, 그린피스선장, 중국기지 대장, 동독 과학자)

미국 맥머도기지는 여름에는 1,000여명이 생활하는 남극최대기지로써 못쓰는 장비가 쌓여있고 하수가 쏟아지고있다. 반드시 그린피스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1,000만불의 예산으로 맥머도기지의 대규모 환경정리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린피스기지는 그린피스담계, 일체의 쓰레기를 모아서 문명세계로 운반, 처리하고있다. 그린피스는 1988년, 1989년에는 남극기지들이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대로 기지를 유지하며 환경보호를 하는지 직접 검열하고있다. 즉, 1988년 4월에는 그린피스호로, 1989년 10월에는 곤드와나호로 남 체트란드군도의 킹 조지섬에 있는 우리나라 남극기지인 세종기지와 주변기지들을 검열했다. 검열내용은 하수를 포함한 쓰레기처리방식, 기지주변의 동, 식물보호대책, 기지중축계획유무 등 남극환경보호와 관계된 사항이었다. 실제, 남극에서는 가연성무독쓰레기는 태울 수 있으나 가연성유독쓰레기, 예를 들면 비닐, 플라스틱, 고무, 폐유 등은 소각할 수 없으며, 문명세계로 운반해야한다. 밧데리는 매몰할 수 없으며 사진현상액도 문명세계로 운반해야한다. 생활하수는 생물학적이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방류해야한다. 우리 세종기지는 하수처리시설과 소각로가 장비되어있어서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들은 필자가 대장으로 있었던 1988년 4월 검열에서, 소각로에서 방출하는 가스의 성분검사와 기지주변의 동, 식물보호를 적극권유하고, 유류야적지에서 검사용 흙을 퍼 담던기억이 난다. 그린피스 검열단 책임자는 벨기에여자로 동물학자인 Maj de poorter박사로 미혼인 몸으로 남극환경보호캠페인



▲ 기지검열후 기지를 떠나는 그린피스 단원들.
마리안 코브는 얼음조각으로 덮여진다.

을 주도하고있었다. 1988년 4월 검열시 칠레기지는 정책상 이들의 검열을 거절했으나, 이들은 상륙, 검열했다. 실제, 그린피스는 너무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환경보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1988년에는 남극의 자연환경, 육상동식물, 해양생태계, 해상동식물, 인간의 활동, 남극에서의 그린피스의 역할 등을 엮어서 남극의 새로운 면을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수준높은 남극서적 "The Greenpeace book of Antarctica (ISBN 0-385-26280-9)"를 발행했다. 이 책에서 이들은 남극환경의 취약성과 그에 따르는 절대보호를 강조하고있다.

현재 그린피스는 다른 환경보호단체들과 협력해서 1988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된 남극지하자원개발방안을 절대반대하고있다. 더욱이 1989년 1월28일 최남극 미국남극과머기지앞에서 좌초, 침몰한 아르헨티나 남극보급선 바이하 파라이스호의 해양오염사고이후 남극환경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은 서구를 비롯하여 상당한 나라의 지지를 받고있다. 지구의 환경이 하루하루 나빠져가고있는 이 때에 그린피스처럼 적극적인 환경보호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